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

김 성 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아무리 미화분식하여도 인민대중에게 착취와 압박, 실업과 빈궁을 가져다주는 반인민적인 본성을 가리울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5권 52페이지)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모든 활동이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유희화폐자본의 운동으로서의 금융활동도 금융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시장이 발생한 초기에는 주로 단기자본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거래과정과 절차가 짜여짐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장기자본 거래가 차지하는 몫은 계속 커지고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시장이 고정자본의 증가를 위한 중요한 자본조달공간이라는데 있다.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자본은 장기대부자본이며 이것은 자본주의확대재생산과정에서 주로 고정자본투자에 돌려지고있다. 그것은 고정자본이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기때문이다.

고정자본증가를 위한 대부자본은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장기대부자본에 의하여 충당된다. 반면에 류동자본은 자기의 가치를 단번에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시키는것으로 하여 여기에는 주로 단기대부자본이 돌려진다.

자본주의확대재생산에서 고정자본이 노는 역할은 류동자본에 비하여 크며 자본가들속에서 고정자본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더욱 높아지고있다.

고정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우선 자본주의경제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독점이 형성되며 그리하여 기업체들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된데 있다.

무제한한 경쟁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한편으로는 수많은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통하여 자본의 집적과 집중과정을 거쳐 거대독점기업들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독점체들은 자기의 독점적기반을 강화하고 독점적지위를 공고히 하여 그로부터 독점적고률리운을 짜내기 위하여 자기 기업체의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려고 하며 이러한 기업체의 규모확대는 종업원수의 증가나 류동자본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고정자본의 증가를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고정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또한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설비의 갱신주기가 빨라진데 있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계속 높아지고있으며 여기서도 특히 고정자본의 비중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값비싼 설비들이 계속 개발도입되고있으며 이 설비들이 재래식설비들에 비하여 그 생산성이 비할바없이 높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비의 갱신주기가 비할바없이 빨라져 한번 구입한 설비도 1~2년내로 도

덕적으로 마멸되는것으로 하여 고정자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줄 모르고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자본가들속에서 고정자본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장기대부자본거래는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은 더욱더 두드러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은 다음으로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 대한 부르조아국가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황과 실업의 원인이 《투자부족》 즉 《파소투자》에 있다는 궤변에 기초하여 《투자조절》에 관한 《케인즈주의》를 날조해냈다. 여기에서 골자를 이루는것은 실업과 공황의 원인인 《유효수요》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적소비와 생산적소비수요를 늘여야 하는데 개인소비는 《소비성향》이라는 《심리적법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있는 생산적소비수요 즉 기업가들의 투자를 늘이는데 모를 박아야 하며 따라서 국가에 《투자조절》의 권한을 넘겨준다면 공황도 실업도 다 청산할수 있다는것이다.

《케인즈주의》는 《투자조절》을 실현하자면 대부리자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산업자본가들에게 화폐자본을 대량 뿌려주고 《투자의 사회화》를 실현하며 국가가 사적투자를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재정금융적특혜를 베풀어줌으로써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시책을 직접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장기대부자본의 투자가 진행되는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을 통하여 투자를 자극하려는 목적은 우선 리자률을 낮추어 독점자본에 대한 녹거리용자를 실현함으로써 독점자본주의의 치부의 원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으며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거액의 화폐자본을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치부하고있는 금리생활자, 투기업자들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끌어올려줌으로써 그들의 돈주머니를 더욱 가득히 채워주려는데 있다.

자본시장을 통하여 투자를 자극하려는 목적은 또한 《투자의 사회화》, 《공공투자》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으로 이루어지는 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국가자금을 독점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독점자본을 살찌우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반인민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실현의 기본공간이라는데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이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시장의 착취적성격은 다음으로 자본시장이 자본주의금융의 기형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투기적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적수탈을 더욱 강화한다는데 있다.

자본시장은 화폐시장에 비하여 투기적성격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시장대부리자률이 10%에서 20%로 올랐다고 하면 표면리자률이 10%, 액면가격이 1 000US\$ 일 때 만기가 1년인 채권의 가격은 그대로 1 000US\$이지만 만기가 30년인 채권의 가격은 503US\$로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들의 가격과동이 매우 심하며 그로부터 자본시장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금융투기군들의 심리에 꼭 들어맞는 시장이라는데 보여준다.

이로부터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거래, 장기채권거래 등의 많은 몫은 순수 투기거래로 진행되고있으며 이것은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더해주고있다. 더우기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투기의 판무장

으로서의 자본시장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자본주의금융업무의 기형화를 촉진시켰으며 그 투기적성격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자본시장의 투기적성격이 강화된것은 우선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난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의 자유화, 증권화, 국제화가 활발히 진척된것과 관련된다.

《금융혁신》을 통하여 금융의 자유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조건들이 확립되는것과 함께 금융의 증권화가 추진되고 국제증권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업무 분야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그 응용제품들의 도입으로 위험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출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자극하는 한편 그 거래방법도 고도로 발전되었다. 결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증권시장에로의 진출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었으며 금융기관들뿐만아니라 개인들, 공적기관들까지 자본증권거래에 경쟁적으로 참가하였다.

자본시장의 투기적성격이 강화된것은 또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화폐자본의 루적현상이 강화되고 특히 경제적침체에 물가가 상승하는 침체인플레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것과 관련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체안에 내재하고있는 심각한 모순으로 하여 화폐자본이 날을 따라 파잉축적되게 된다. 전후 20년동안 주기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리던 자본주의경제는 1970년대 중엽부터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석유수출기구성원국들이 제국주의렬강들의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인 경제적억속화를 반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석유가격을 공동으로 올린 결과에 터진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침체인플레이현상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자본주의경제는 불경기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실자본이 파잉상태에 빠지고 방대한 파잉화폐자본이 형성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것은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화폐자본이 대대적으로 증권에 투자되는 경향을 초래하였으며 결과 그 거래마당인 자본시장의 투기성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다.

자본시장의 투기적성격이 강화된것은 또한 자본주의경제가 주기적인 침체와 위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자본이동문제가 보다 복잡해지는것과 관련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적자본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직접투자형태였다. 대부 자본수출형태로서의 간접투자와 달리 직접투자는 산업자본의 수출형태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수출의 지배적형태로 되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직접투자대상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화되고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대기업들이 다국적기업화되어 서유럽이나 후진국들에 대한 투자를 늘임으로써 이에 따르는 자본이동이 이루어졌다면 1970년대에는 서유럽기업이나 일본기업들이 직접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선진국들사이의 호상 직접투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불경기로 하여 유리한 투자기회를 잃어버린 각국의 유희화폐자본이 변동시 세계에서의 환차시세차이로부터 오는 리득을 얻기 위하여 유로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증권투자, 은행대부와 같은 간접투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자본수출의 중심이 직접투자로부터 간접투자로 옮겨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1980년대이후에는 신흥경제국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주요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호상투자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자본이동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증권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자본시장에서의 투기활동을 더욱 증대시켰다.

자본시장의 투기적성격이 더욱 강화되면서 자본시장거래에는 높은 리운을 추구하는 투기적자금들이 물밀듯이 흘러들게 되었으며 결과 자본시장상품거래량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몫은 보다 커지게 되었다.

2010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거래된 자본시장상품의 규모는 54조 3 050억US\$로서 같은 해 화폐시장상품거래규모인 7조 2 951억US\$의 근 7.4배에 달하였으며 캐나다자본시장에서 그 규모는 각각 2조 7 466억US\$와 1 967억US\$로서 근 14배에 달하였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상품거래량이 1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캐나다에서는 그 증가량이 11.3배에 달하였다.

이처럼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신용관계의 확대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하여왔으며 그 착취적성격은 날을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자본시장은 전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부르조아국가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을 실현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위기에 처한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의 명맥을 이어주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반인민성과 약탈성에 대하여 똑바로 인식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